



날아라 비행기

- * 글 : 김희정
- * 그림 : 안병현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1,000원
- * 분량 : 96쪽
- * 대상 : 초등 중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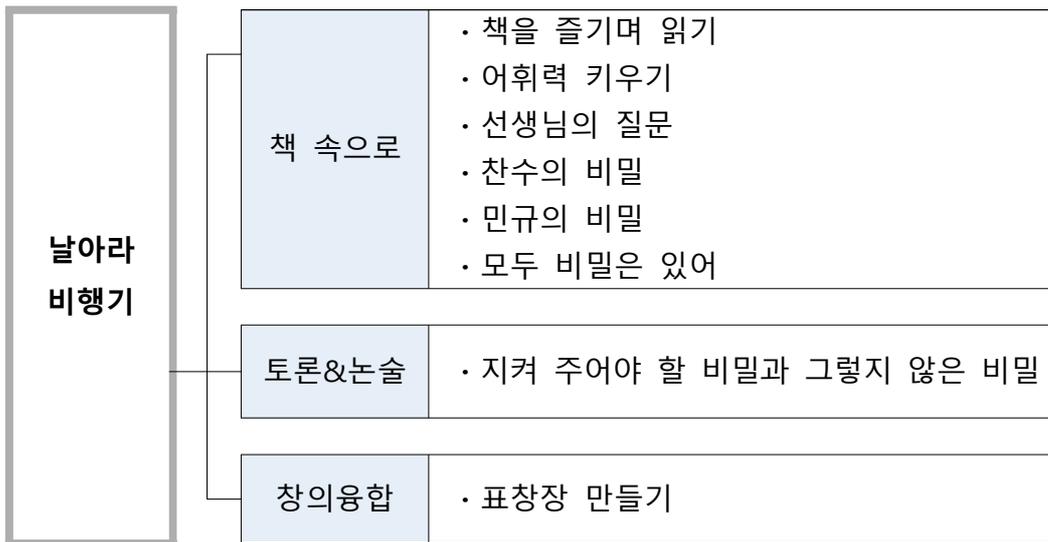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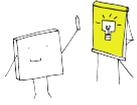
“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꼭 권해 주고 싶은 책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자신감이 부족한 찬수는 공부도 잘하고 형편도 좋아 늘 신상 레고와 보드게임을 자랑하는 민규를 알뜰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찬수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간 걸 말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민규 때문에 탄로 나고, 서로 크게 다투지요. 이 일로 찬수는 학교를 결석하고 전학까지 생각했지만, 결국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됩니다. 둘은 어떻게 화해했을까요?

친구와 싸울 때마다 “재량은 절대 안 놀아!” 하면서 한 명씩 관계를 끊어 버리면, 결국 나만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니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날아라 비행기』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날아라 비행기』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비밀은 지켜 주고 오해는 풀어야 해.
그래야 좋은 친구를 가지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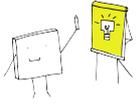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숨기려다 점점 더 커져 결국 탄로 나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수는 더 이상 친구들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학교도 결석하고, 전학까지 생각합니다.

이대로 도망치는 게 답일까요?

실망을 안겨 준 친구와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찬수는 왜 학교에 결석하고, 전학까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 2) 친구와 오해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화해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오해를 풀었나요?
- 3) 거짓말을 한 뒤에 다시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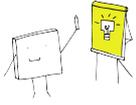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1. 『날아라 비행기』를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어휘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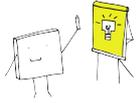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1. 『날아라 비행기』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를 읽고,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는 사전에서 찾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단어	단어의 뜻은 뭘까?
① <u>어물쩍거리며</u> 대답을 못 했다.	
② 민규는 아주 신나서 <u>출싹댔다</u> .	
③ 희서는 레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u>심드렁했다</u> .	
④ 아빠는 <u>툰별할</u> 때 찍은 동영상에서 말했다.	
⑤ 민규는 인태에게 <u>비아냥거렸다</u> .	

2) 다음 중 아래 [보기]의 밑줄 친 ‘풀다’의 뜻을 사전에서 찾았을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기]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폭력은 쓰지 말고 대화로 풀어!”

- ① 생각이나 이야기 따위를 말하다.
- ②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 ③ 가축이나 사람 따위를 우리나라 틀에 가두지 아니하다.
- ④ 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 ⑤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선생님의 질문

(1~2) 『날아라 비행기』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데 나도 아마 캐나다 다녀왔으면 분명히 자랑했을 거다. 아예 스피커를 켜고 동네방네 다 들어라 마이크로 떠들 거 같다. 그러니 민규는 지극히 정상이다. 단지 회사 앞에서만은 제발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회서가 민규랑 웃으며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콧속 쓰러서 슬쩍 자리를 피했다.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뒤 개학날도 이랬다. 눈썰매 탄 걸 말하려고 했는데, 너도나도 스키 탄 이야기를 하길래 말이 썩 들어갔다. 개학날마다 벌어지는 풍경이 하나 더 있다. 선생님들은 발표시키는 게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 재미있었던 일을 손들고 나와서 발표해 보자!”

나는 해외여행은커녕 학원만 왔다 갔다 했다.

‘젯, 회사 앞에서 품 좀 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 인태와 나에게 민규는 자랑쟁이로 통한다.

인태가 툭툭거렸다.

“자랑쟁이 녀석! 비싼 레고 많이 산다고 또 잘난 척하네.”

“저거 만들어 보고 싶어!”

민규 레고를 보니 레고가 하고 싶었다. 하지만 레고방까지 가는 건 귀찮았다.

‘민규처럼 집에 신형 보드게임이나 레고가 팍팍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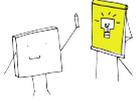
“찬수야, 저 녀석 꼴 보기 싫는데 이번 생일 파티에는 가지 말까?”

1. 찬수는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위의 글을 읽고, 아래 표를 채워 주세요.

민규	회서	인태

2. 선생님이 개학식에 시킨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의견 중 어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p><선생님이 질문을 잘못했다.></p> <p>학급의 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풍족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다. 방학 때 한 일을 물으면 두 부류가 나뉘고, 집에만 있었던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p>	<p><선생님의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다.></p> <p>선생님의 질문에 꼭 해외여행 다녀온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재미있게 본 텔레비전이나 책을 이야기해도 된다.</p>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찬수의 비밀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처음에 맛나게 먹다가 불쑥 기내식 떡볶이가 떠올라서 목이 콧 막혔다. 물을 마시면서도 기침이 계속 나왔다.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가시가 되어 찔렸다.

‘떡볶이, 기내식, 영화, 비행기, 해외여행…….’

언제 또 싱가포르 이야기를 꺼낼까 봐 떡볶이 맛도 못 느끼고 불안했다. 인태에게 미처 말할 기회도 없이 거짓말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다.

(나) “공부고 뭐고 비행기 조종사도 다 싫어요!”

거실 바닥을 쿵쿵쿵 걸어 내 방문을 꽁 닫았다. 내 마음과 다르게 마치 엄마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았다. 요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거짓말을 술술하더니 일은 점점 꼬여만 간다. 차라리 사춘기면 핑계라도 댈 수 있는데 말이다. 아직 수염은커녕 털 한 올도 안 나고 사춘기는 절대 아니다.

때를 부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걸, 후회가 되었다.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한 번 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다. 하지만 이미 이고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1. (가)에서 찬수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도 찬수처럼 거짓말을 하고, 불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자신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3. (나)와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참고해서 정답을 적어 보세요.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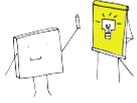
‘한번 저지른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 쏘아 놓은 살이요, 이다

4. 찬수는 마음과는 달리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맙니다. 찬수가 다음 날 엄마에게 사과를 한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찬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할 말을 적어보세요.

찬수:

엄마: 괜찮아. 엄마도 우리 아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민규의 비밀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잘난 척 끝판왕 이찬수! 나도 너 싫거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거짓말이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너석이 왜 나보고 잘난 척을 한다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저게 정말, 잘난 척은 정민규 네 특기잖아? 자랑은 늘 네가 신나게 하고는 왜 나한테 그러는데?”

민규는 내게 결정적인 한 방을 세계 퍽 날렸다.

“넌 거짓말쟁이야! 비행기 안에서 떡볶이 먹었다며? 응? 떡볶이가 아주 맛있었다며?”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너석이 심하게 닦아세우니 너무 창피해서 나도 뭔가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고 싶었다.

‘너도 친엄마는 돌아가셨잖아! 의사라고 자랑하던 아빠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 다 알아…….’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결코 가족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가족 일은 비밀로 하고 싶을 거야!’

“인태랑 너랑 나 왕따 시키는 거 다 알아! 거짓말하고 왕따 시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착한 척하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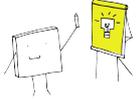
1. 찬수와 민규가 알고 있는 서로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찬수가 알고 있는 민규의 비밀	민규가 알고 있는 찬수의 비밀

2. 찬수가 민규의 비밀을 감춰 준 까닭과 민규가 찬수의 비밀을 이야기한 까닭은 각각 무엇인가요?

찬수가 민규의 비밀을 감춰 준 까닭	민규가 찬수의 비밀을 이야기한 까닭

3. 민규는 찬수의 비밀을 친구들 앞에서 말해버립니다. 이런 민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모두 비밀은 있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저는 의사 되기 싫어요. 피, 수술, 칼, 그런 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도대체 의사가 싫으면 뭐가 되고 싶은데?”

“아빠! 저는 재미있는 보드게임이나 레고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레고랑 보드게임 같은 건 취미 생활이지 직업이 아니라고!”

민규는 이제 울먹이기 시작했다.

“흐흑, 캐나다에 있던 한 달이 지옥이었던 말이에요. 한 달도 힘든데 1년을 떨어져서 공부하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랑 떨어져서 살기 싫어요! 절대 비행기 안 타요!”

민규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했다.

(나)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거지.”

녀석이 입을 실룩거리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나는 엄마가 참 좋지만, 친엄마가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건 싫어…….”

“알아, 나도 아빠가 돌아가신 걸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으니깐!”

“나는 아빠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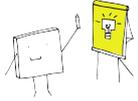
“그래, 아줌마 좋은 분인 거 다 알아!”

“아빠한테는 내 마음을 말하기 힘들었는데, 어제는 엄마랑 찬수 덕분에 없던 용기를 낼 수 있었어!”

1. (나)에서 민규가 말한 ‘마음’은 어떤 걸까요? (가)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2. 민규의 아빠는 민규를 위해서 의사가 되라고 합니다. 아빠의 말처럼 민규가 의사가 된다면 행복할까요?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 여러분이 민규라면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만들어가려는 아빠를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나요? 민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빠를 설득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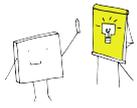
독서 후 토론&논술_ 지켜 주어야 할 비밀과 그렇지 않은 비밀

1. 세상에는 지켜 줘야 할 비밀도 있고, 알려야 할 비밀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지켜 줘야 할 비밀과 그렇지 않은 비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지켜 줘야 할 비밀

지켜 줄 수 없는 비밀

2. 내가 나눈 기준과 친구가 쓴 기준을 비교해 보고, 무엇이 다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놓고 서로 토론해 보세요.



독서 후 창의융합_ 표창장 만들기

※ 『날아라 비행기』에서 찬수의 엄마는 우수사원이 되어 표창장을 받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한 엄마와 아빠 없이도 멋지게 지내고 있는 찬수에게 표창장을 주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가 되어 엄마와 찬수에게 표창장을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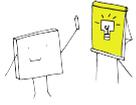
아빠도 엄마가 우수 사원 된 일을 기뻐할 거다. 아빠 없는 동안 엄마는 열심히 일했다. 나는 아빠가 없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 오늘 일은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표 창 장

아내
김정미

표 창 장

아들
찬수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 앞표지에 나온 네 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인가? 예) 비행기를 타고 있는 친구는 겁이나 보이는데, 비행기를 무서워하나? 예) 뒤표지 칠판에 ‘개학’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개학식에 일어난 일인가?</p> <p>2. 1) 거짓말한 게 탄로 난 것 같다. 2) 예시 답안) 친구와 솔직하게 얘기하니 금방 오해가 풀렸다. 3) 예시 답안)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지만, 말하고 나니 시원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p>
3쪽	<p>1. 예시 답안) 공감하는 내용: 25쪽. 나도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들통 날까 걱정이 되어서 체했던 적이 있다. 공감하지 않는 내용: 21쪽. 친구가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다고 생일 파티에 가지 말자고 하는 건 공감이 가지 않았다. 인상 깊은 내용: 76쪽.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 이해해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책 내용에 관한 자신의 생각: 찬수의 말처럼 모두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비밀은 누군가의 아픔이나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11쪽. 나는 모르는 주제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찬수처럼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 책을 읽고 나니,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4쪽	<p>1. (가이드) 아이들이 자기가 적은 단어의 뜻과 사전의 뜻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전은 기본형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물쩍거리다: 꾀를 부리느라고 말이나 행동을 자꾸 일부러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짝 넘기다. *출썩대다: 주책없이 달랑거리며 자꾸 돌아다니다. *심드렁하다: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하여서 관심이 거의 없다. *투병: 병을 고치려고 병과 싸움. *비아냥거리다: 알뜰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다. <p>2. ④</p>
5쪽	<p>1. 예시 답안) 민규: 잘난 척을 자주 해서 알밋다. 레고를 마음대로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부럽다. 희서: 좋아한다. 희서랑 민규가 웃으며 말할 때는 질투가 나기도 한다. 인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다. 민규가 알미를 때도 인태가 그 마음을 알아줘서 다행이다.</p> <p>2. 예시 답안) 선생님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방학 때 읽은 재미있는 책은?’ ‘방학에 만났던 사람 중 가장 반가웠던 사람은?’ 이렇게 모두가 했을 법할 일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었을 것 같다. / 선생님의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방학 때 여행 다녀온 것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질문을 했어도 자랑하고 싶은 애들은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건 그렇게 느끼는 친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p>
6쪽	<p>1. 예시 답안) 한 가지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계속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다. 2. 예시 답안) 나도 찬수처럼 가보지 않은 여행지에 가 봤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 계속 질문을 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후회를 했었다. 3. 옆질러진 물 4. 예시 답안) 엄마, 친구들은 다 비행기를 타 봤다고 해서 나도 방학 때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거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화를 냈어. 미안해.</p>
7쪽	<p>1. 찬수가 알고 있는 민규의 비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와 살고 있는 것. 의사라고 자랑하던 아빠가 민규를 힘들게 한다는 것.</p> <p>민규가 알고 있는 찬수의 비밀: 비행기를 타 보지 않았으면서 싱가포르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p> <p>2. 찬수가 민규의 비밀을 감춰 준 까닭: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면 민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민규가 찬수의 비밀을 이야기한 까닭: 자기를 빼고 인태와 찬수만 친하게 지내는 게 화가 나서.</p>

	<p>3. 예시 답안) 민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찬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친구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덮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p>
8쪽	<p>1. 의사가 되기 싫은 것, 캐나다에 가기 싫은 것. 2. 예시 답안)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민규는 다른 꿈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3. 예시 답안) 아빠에게, 아빠, 저 민규예요. 오늘은 아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편지를 써요. 아빠가 생각하기에 제 꿈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예요. 만약 아빠가 원하는 대로 공부해서 의사가 된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 꿈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규가</p>
9쪽	<p>1. 예시 답안) 지켜 줘야 할 비밀: 예시 답안) 친구 가족의 문제, 성적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켜 줄 수 없는 비밀: 예시 답안)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등의 잘못들도 알려야 한다. 2. 예시 답안) 나는 친구의 가족 문제는 비밀로 지켜 줘야 한다고 했는데, **는 가족의 문제 중 학대나 폭력과 관련된 것은 비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학대나 폭력에 대해 친구가 비밀로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얘기를 해야 할까? 이 문제로 같이 토론을 해 보기로 했다.</p>
10쪽	<p>예시 답안) 귀하는 평소에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위해 일했고, 집에서도 찬수의 아빠 역할까지 부족함 없이 해 주었기에 이 상장을 줍니다. 예시 답안) 귀하는 평소에 바쁜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 노력했으며, 자신의 아픔을 거울삼아 다른 친구의 아픔까지 덮어 주려는 고운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잘 자라나고 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p>